



미국, 경기침체 우려 확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버냉키 연준 의장 등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높은 실업률과 주택시장 침체,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함.

- 버냉키 연준 의장은 10월 4일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흔들리고 있으며, 연준은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.
- 경제전망기관인 이코노믹 사이클 리서치도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으며, 주요 지표들이 연착륙보다는 완전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함.
- 민간 조사기관인 컨퍼런스보드는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 약화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,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50% 미만으로 아직은 낮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우려를 나타냄.

■ 한편, 10월 4일 골드만삭스는 2012년 1/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0.5%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9%대 중반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함.

- 골드만삭스는 유로지역 수출 둔화, 금융시장 기능 약화 등으로 2012년 1/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0.5%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, 실업률은 9.5%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.
- 또한,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40% 수준으로 크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, 유럽 재정위기 확산이 높은 실업률로 취약해진 미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.
- 그러나 경기가 거의 저점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그 기간과 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며, 소비자들도 금융위기 이후 3년간 개인부채를 정리하고 지출을 줄여왔기 때문에 심각한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.

(Reuters, 10/5)